

# 가금농장 출입 전 소독만 잘해도 세균 크게 억제

사람은 공기샤워 분무소독...차는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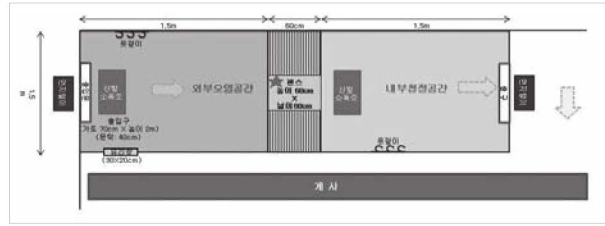
출처 : 농촌진흥청



〈전실에서 장화 소독모습〉

- ◎ 가금농장을 출입하기 전 소독만 제대로 해도 세균(병원균 포함)을 크게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◎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농장의 소독시설 평가를 통한 올바른 소독 방법과 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한 효율적인 전실(축사 내부·외부 사이의 간이 공간) 모델을 소개했다.
  - 우리나라는 2016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로 약 3,78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으며, 올 겨울도 야생조류와 일부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돼 긴장을 늦출 수 없다.
  -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소독 방법과 축사 전실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.
- ◎ 농촌진흥청은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차와 사람, 신발의 소독 방법에 따른 효과를 실험했다.
  - 차량은 바퀴 한 부위에 암모늄 희석액을 3초 이상 고압분무 소독한 결과, 세균이 100% 억제됐다. 바퀴 전체 부분의 효과를 위해 바퀴 당 10초 이상 소독할 것을 권한다.
  - 사람 소독시설은 공기샤워(에어샤워) 후 구연산 제제의 분무소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, 공기샤워만 했을 때보다 세균 수 억제 효과가 높았다.
  - 발판은 암모늄 희석액으로 소독한 직후보다 4시간이 지난 뒤 세균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. 따라서 축사 안에서 신는 장화 등은 사용하기 하루 전 미리 소독액에 담가 놓도록 한다.
- ◎ 외부의 오염된 공간에서 내부의 깨끗한 공간으로 진입이 쉬울수록 바이러스도 쉽게 들어오며 축사 내부의 오염 확률도 커지게 된다.
  - 전실 안에 펜스(울타리)를 설치해 축사 안과 밖을 구분하고 강제적으로 소독을 유도함으로써 축사 안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.

◎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박기태 수의연구사는 “올바른 소독법, 그리고 손, 신발의 소독과 장화교체에 강제성을 띤 전실 모델의 운영으로 악성 바이러스와 세균의 유입을 최소화하자.”라고 전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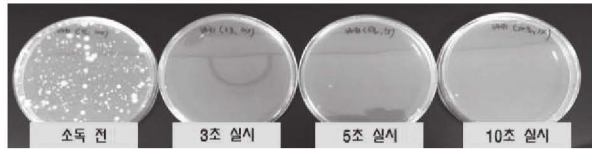
〈'전실' 설계도의 예시 -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〉

**참고자료**

◎ 차단방역시설의 총세균수 억제 효력 확인

○ 차량소독시설

- 차량바퀴의 한 부위에 고압분무 (4급암모늄 제제 100배 희석액) 3초 이상 실시 후 총세균수 100% 억제



〈차량 바퀴 고압 분무 소독〉

- 바퀴의 전체적인 효과를 기대하여 바퀴 당 10초 이상 실시 추천

○ 대인소독시설

- 에어샤워 실시 후 71% 억제, 에어샤워와 분무소독 (구연산 제제) 실시 후 93.9%의 총세균수 억제



〈대인소독 (에어샤워 + 분무소독)〉

○ 신발소독시설

- 발판소독 (4급암모늄 제제 100배 희석액) 직후 53.6% 억제, 소독 4시간 경과 후 99% 이상의 총세균수 억제
- 소독 효능 극대화를 기대하여 내부 장화의 경우 사용 전 날 미리 소독액에 침지 시켜 놓는 방법을 추천



〈신발소독 (먼지떨이 + 발판소독)〉

